社會心理學硏究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1987, Vol. 3, No. 2, 25~43

韓國大學生의 價値觀과 政治*
-交叉文化的 分析-

李 勳 求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 머리말

한 나라에서 大學生은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의 대학생의 영향력은 막강한 바 그들은 사회의 지식층, 지도층의 위치에 서서 사회변화를 촉지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日帝時代, 4.19, 그리고 최근의 學生運動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힘이 다대함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 大學生이 어떤 特性을 갖고 있는가를 硏究한 경우가 드물다. 더러 한국 대학생의 가치, 사회적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으나 이들 연구는(예컨데 김 태길, 1977 ; 황 응연, 1975) 한국 대학생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無選標集이 아닌 任意標集이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의 一般化에 문제가 있다. 또 많은 연구들은 價値의 槪念定義가 애매하여 가치가 아닌 사회적 태도를 조사한 경우가 많았다 (차 재호 1986).

최근 동서의 사회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여러나라의 대학생들의 가치, 사회적 태도, 그리고 정치적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즉 Klineberg, Zavalloni, Louis-Guerin, 그리고 BenBrika(1979)는 서구 5個國(불란서, 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영국), 북미주 1個國(미국), 오세아니아 1個國(오스트랠리아), 아시아 1個國(일본), 구라파 사회주의 국가 1個國(유고), 그리고 아프리카 2個國(튜니시아와 나이제리아) 총11個國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의 설문서를 작성하여 교차문화적 비교연구를 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대학생의 현실참여 운동이 범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던 1969-1970년에 실시된 것이다.

Klineberg등이 공동연구를 착수하게 된 動機는 1968년 UNESCO의 제15차

*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연세대 대학원생 김 범준의 노고가 많았음.

General Conference가 마련한 현대 사회에서의 청년(Youth in Cortemporary Society)이란 심포지움(UNESCO, 1969)때문이었다. 이 심포지움의 참가자들은「오늘날 전세계의 청년들은 청년 특유의 일종의 범세계적인 문화를 탄생시켰는 바 이것은 전통 형태에 고착되어 있는 成人文化와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Klineberg등은 이러한 범세계적 청년문화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여러국가의 사회과학도들을 규합하고 공동연구에 착수 하였던 바 그들의 연구주제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사회적및 정치적 태도였고 이들은 특히 당시 즉 1960년대 말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학생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즉, 연구자들은 학생운동의 원인과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학생운동의 범세계적 공통 현상을 밝히고 아울러 각 국의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청년문화가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큰 차이가 있고 특히 대학이 청년문화의 産室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 부터 밝혀진 사실이다. Newcomb(1943)는 베닝턴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적 태도에 관한 변화를 살펴본 바 이 대학생들이 대학입학후 급격한 정치적 태도변화를 보였음을 밝혀냈다. 원래 베닝턴대학신입생은 보수주의적 태도를 가진 중상층의 자제들이었지만 이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학년이 높아갈 수록 부모의 보수주의적 가치관을 버리고 점진적으로 급진적인 정치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물론 그 이유는 이들이 이 대학 상급생들의 급진적 정치태도를 모방했기 때문이다. 대학신입생들의 급격한 정치적 태도변화는 비단 외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최근 김 진국(1987)은 전남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가치관및 정치적 태도변화를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계속 조사해본 결과 1학년생의 태도는 불과 6개월이내에 전남대학의 상급생의 정치적 태도와 유사해지는 놀라운 태도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가지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참조해 볼 때 청년들이 기성세대와는 현격한 가치관및 태도를 지니고 있고 또 특히 대학사회는 청년들의 이러한 급격한 가치및 태도변화의 근원지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청년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생들의 가치관및 태도를 연구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한국 전체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학년별, 전공별 그리고 남여별에 따른 이들의 가치관, 정치적 사회적 태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대학생의 여러가지 배경특성(학년, 전공, 남여등)을 무시한채 조사되어 전반적인 추세만을 조감하는데 그쳤다. 또한 이번 조사는 그 조사결과를 외국의 결과와 비교해 보자는 원대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우리 대학생은 외국의 대학생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청년문화가 과연 범세계적인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사의 두번째 큰 조사목적이 된다.

2. 調査內容

1) Rokeach의 가치관

이 연구에서는 먼저 대학생의 가치관을 조사하고자 했다. 가치관 또는 가치[1]는 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구태여 定義한다면 어떤 文化속에서 傳統的으로 중요시되어 온 것이며 그 이유를 구태어 지적할 수 없이 그저 「좋아하는 것」 또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Bem(1970)은 가치란 "어떤 존재의 종국상태나 어떤 광범위한 행위양식등에 관한 원시적 선호내지 正的인 태도이다" 라고 定義했다. 이러한 定義에 따른다면 가치 또는 가치관은 구체적인 사회적 태도 또는 意見및 信念과는 다른 개념이나 많은 사회과학도들이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고는 청소년 또는 대학생의 가치관을 조사했다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Rokeach(1968)의 가치관 검사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그는 가치를 두 종류로 구분하여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란 개인이 그의 일생에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가치를 말하며 도구적 가치란 궁극적 가치를 획득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 말했다. 궁극적 가치로는 자유, 가족의 안전, 세계의 평화같은 것이 있고 도구적 가치에는 능력, 남에게 도움이 됨, 야망 등이 있다.

Rokeach는 18개의 궁극적 가치와 18개의 도구적 가치를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로 각 가치의 서열을 메기게 하였다. 이 Roleach의 가치관 검사는 사용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널리 受用되고 있으나 한가지 단점은 응답자가 순위를 메겨야할 가치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다. 서열을 지워야할 가치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자의 順位評定은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任意로 각기 8개의 궁극적 가치와 8개의 도구적 가치를 選定하고 두 종류의 가치별로 8個의 가치중에서 응답자가 다섯개만을 골라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각 가치의 順位를 메기게 했다.

두 종류의 가치별로 18個의 원래 Rokeach목록에서 각기 8個씩을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Rokeach의 궁극적 가치목록을 살펴보면 어떤 가치는 集團

1) 심리학에서는 가치관보다는 가치라는 말을 더 選好하지만 일반사회과학에서는 가치관이 더 通用되는것 같다. 가치관은 가치를 보는 눈으로 그리고 그눈은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것 같다(차 재호, 1986). 이 연구에서는 가치와 가치관을 混用해서 쓸 것이다.

的(또는 利他的)인 것인가 하면 어떤 가치는 개인적(또는 利己的)인 것이 있다. 예컨데 국가안위, 세계의 평화같은 것은 집단적 가치이고 가족의 안전,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등은 개인적 가치이다. 물론 여기서 어떤 가치가 集團的이고 個人的인 것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조사에 사용할 가치를 선정할 때 너무 한 종류의 가치만 선정하면 피험자의 가치관을 편파적으로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集團的 가치와 개인적 가치차원을 고려하여 8個의 가치가 이 두 종류의 가치를 골고루 대표하도록 선정 하는 것이다.

한편 Rokeach의 18개의 도구적 가치를 선정할 때 고려한 차원은 성취지향적 대 도덕성이다. 연구자가 도덕성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 가치는 남에게 도움이 됨, 사랑, 정직, 그리고 자제심이다. 한편 성 또는 성취지향적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한 가치는 능력, 독립심, 야망등이었다.

2) 사회적 가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가치를 조사하고자 했는 바 이용된 가치검사는 Perole(1967)가 만든 사회적 가치 질문서(Social Value Questionnaire)이다. 그의 사회적 가치검사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과 가족이 아닌 二次社會集團에 대한 관여(commitment)등을 주로 재는 것이다. 구태여 Perole의 사회적 가치검사를 이 연구에 포함시킨 이유는 우리나라는 유교가 밑바탕이 된 가족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족이 아닌 二次社會集團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이를 중요시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였다.

Perole의 사회적 가치는 네가지의 下位次元으로 나누어 지는데 각 가치차원과 그 가치차원의 대표적인 문항하나를 예로들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 : 자기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를 달성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있다.

② 집단목표 동조 : 집단의 목표와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집단이 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③ 집단 동일시 : 개인은 어떤 집단에 깊게 관여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④ 도덕적 압력 : 집단이 합의를 본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꺼이 비판해야 한다.

Perole의 사회적 가치검사중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골라 각 차원별로 4개씩의 문항을 선정하였다(총 16개의 문항). 응답자들에게 각

문항을 읽고 이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지에 따라 5點 尺度上에 표시하도록 했다.

3) 정치 및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政治批判및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잇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태도와 아울러 이들이 학생운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했다.

정치에 대한 비판및 정치문제에 대한 태도는 네 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했는바 리커드형의 진술문을 통해(5點 尺度)조사했다. 그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들 일반 국민의 의견이나 희망은 나라의 정치에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우리사회에서 사회정의가 어느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④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 있어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는 10個의 문항을 가지고 측정했는바 학생운동을 비판하는 것에서 부터 학생운동을 적극지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리커트형의 진술문이다. 응답자가 각 진술문을 읽고 그에 대한 贊反을 토대로 5點尺度上에 자기의 견해를 표시하도록 했는바 그중 두개의 문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현재 학생운동은 미숙한 상태이다. ② 학생운동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것이다.

3. 標　　集

표집의 선정은 比率－階尸－任意標集方法에 따랐다. 시간과 경비문제를 고려하여 먼저 전체표집수를 약 2000명으로 限定하였고 이를 지방 1000명, 서울 1000명으로 配分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각 道를 감안하되 충남, 강원, 제주도는 제외한 각 道에서 1個의 대학을 선정하였다. 대학의 선정은 서울과 지방에서 작년과 금년중에 데모가 가장 심했던 대학을 선택했는바 그 이유는 이러한 대학에서 학생들의 가치관과 정치적 태도가 급변했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그리고 성균관대학을 선정하였고 지방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그리고 충북대를 택하였다.

標集時에는 학생의 전공을 고려했는바 인문계와 자연계를 同率로 標集하여 서울에서 인문계 500명, 자연계 500명을 선정했고 지방에서도 같은 숫자를 표

집했다. 男女의 비율은 대학전체의 男女比率을 고려하여 男女가 4 : 1로 되도록 뽑았다. 각 학년에 동일한 표집수를 할당했으며 인문계및 자연계의 각 과를 골고루 포함시켰다. 연구자는 각 대학의 각 학과(그리고 학년별 · 남여별)의 標集數를 위의 標集方法으로 결정하였고 각 학과내에서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는 각 학과의 助敎에게 일임하였다.

연구자는 미리 設問書를 만들었고 각 學科의 助敎가 이를 집단적으로 또는 個人的으로 실시 하였다. 설문서는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되었고 본조사는 서울의 경우는 1986년 7월부터 1986년 8월 28일 까지, 지방의 경우는 1986년 7월 부터 1986년 8월 7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4. 결과 및 해석

1) Rokeach의 가치관

대학생들의 個人背景的 特性別로 그들이 評定한 Rokeach가치관의 順位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표1의 총점이라는 것은 大學生들이 1位로 뽑은 가치는 5점 2位는 4점씩으로 評定順位에 따라 加算點을 주어 합계를 낸 점수이다. 이 총점이 높으며 높을수록 응답자가 그 가치관을 選好한 것을 나타낸다. 표1의 오른쪽 끝에는 대학생전체의 각 가치관 별 評定順位가 나타나 있는바 그 順位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자유 ② 행복 ③ 가족의 안전 ④ 국가의 안위 ⑤ 평등 ⑥ 세계의 평화 ⑦ 참된 우정 ⑧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

미국의 Medinnus 와 Johnson(1976)은 미국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여 Rokeach 가치관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이들은 Rokeach의 18개 궁극적 가치와 18개의 도구적 가치 모두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조사에서는 8개의 가치관만을 추려서 사용했고 또한 응답자에게 이 여덟개중에서 5개만 골라 평정하도록 했기때문에 미국의 결과와 우리의 결과를 직접비교할 수는 없다

표 1. 대학생의 개인배경적 특성별 대학생들의 Rokeach의 궁극적 가치의 評定順位

궁극적 가치	성별				학년별								전공별				사회경제적 수준						전 체	
	남 (1,587)		여 (421)		1학년 (498)		2학년 (503)		3학년 (501)		4학년 (503)		인문계 (1,010)		자연계 (996)		상 (102)		중 (1,568)		하 (340)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가족의 안전	3,726	3	1,015	3	1,193	2	1,131	3	1,157	3	1,267	3	2,176	3	2,555	2	277	2	3,708	3	760	2	4,748	3
국가의 안위	3,114	4	851	4	1,111	4	1,068	4	962	4	829	4	1,869	4	2,086	4	201	4	3,121	4	644	5	3,970	4
세계의 평화	1,991	7	578	5	677	6	686	6	592	6	616	7	1,246	6	1,325	6	132	6	1,982	6	455	6	2,571	6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	1,772	8	434	8	541	8	501	8	570	8	599	8	1,064	8	1,139	8	157	5	1,766	8	284	8	2,212	8
자 유	4,998	1	1,305	1	1,498	1	1,641	1	1,617	1	1,551	1	3,364	1	2,934	1	245	3	4,908	1	1,158	1	6,312	1
참 된 우정	2,037	6	483	7	697	5	610	7	576	7	636	6	1,179	7	1,337	5	120	7	1,975	7	426	7	2,521	7
평 등	2,358	5	576	6	596	7	847	5	783	5	709	5	1,722	5	1,213	7	88	8	2,173	5	677	4	2,938	5
행 복	3,826	2	1,078	2	1,170	3	1,143	2	1,259	2	1,339	2	2,567	2	2,336	3	313	1	3,898	2	704	3	4,915	2

(즉 평정할 Rokeach의 가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나라의 결과에서 Rokeach 가치의 평정순위가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미국의 결과와 우리의 것을 비교해 보려하는 바 Medinnus와 Johnson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들은 남녀별로 결과를 산출했다). 미국남자 청소년이 Rokeach가치를 평정한 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평화 ② 자유 ③ 평등 ④ 가족의 안전 ⑤ 행복 ⑥ 지혜 ⑦.5 물질적 안락 ⑦.5 우정 ⑨ 이성과의 사랑 ⑩ 성취감 ⑪.5 마음의 평화 ⑪.5 자기 존중 ⑬ 신나는 생활 ⑭ 즐길수 있는 여유 ⑮ 국가안위 ⑯ 사회적 안정 ⑰ 심미 ⑱ 종교적 구원.

한편 미국의 청소녀가 Rokeach의 가치를 평정한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Medinnus와 Johnson, 1976) ; ① 평화 ② 평등 ③ 자유 ④ 지혜 ⑤ 자기 존중 ⑥ 행복 ⑦ 가족의안전 ⑧ 우정 ⑨ 마음의 평화 ⑩ 성취감 ⑪ 이성과의 사랑 ⑫ 사회적 인정 ⑬ 심미 ⑭ 물질적 안락 ⑮ 신나는 생활 ⑯ 즐길수 있는 여유 ⑰ 국가안위 ⑱ 종교적 구원.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두나라 청소년들이 자유, 평화, 행복등을 上順位로 뽑은 것에는 일치를 보이나 국가안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국가안위가 中間順位로 지적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이것은 下位順位로 뽑힌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이 처한 지역적 상황, 분단의 역사, 전쟁경험등이 이들에게 영향을 준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연구와 우리의 연구의 경우 評定할 Rokeach의 가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이 재창(1981)은 Rokeach의 18개의 가치관 검사를 한국청소년에게 실시한 바 있다. 이 훈구(1986)는 이 결과와 Medinnus와 Johnson(1976)의 결과를 비교하고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궁극적 가치관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결론지웠다 ; "……한국 청소년은 가족의 안전, 성취감, 우정을 우선으로 꼽는 반면 미국 청소년은 평화, 자유, 기회균등(평등)을 중요시 하였다. 한국 청소년은 개인이나 소집단과 관련된 가치를 중시하는 바 이는 한국적인 가족제도와 부모들이 중시하는 학업, 출세, 성공등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인것 같다. 반면 미국의 청소년들은 보다 대중적이고 사회집단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또한 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가치와 인권적 내용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시야가 보다 거시적임을 나타낸다. 양국 청소년들이 낮게 평가한 가치는 한국의 경우에는 「종교적 구원」, 「이성과의 사랑」, 「자기 존중」, 「국가안위」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종교적 구원」, 「심미」, 「국가안위」, 「사회적 인정」, 「즐길수 있는 여유」등이었다. 양국청소년은 똑같이 「종교적 구원」에 관심이 없고, 「국가안위」에도 비교적 무관심하나 한국 남자 청소년은 미국에 비

해 「국가안위」에 대한 관심이 약간 높은 편이다." (p. 245).

우리의 조사결과로 되돌아가서 性別로 가치관의 選好를 살펴보면(표1) 남·여대학생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즉 1, 2, 3, 4位 가치는 남자 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이 완전히 일치한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5位의 가치로서 여대생이 「세계의 평화」를 5位로 뽑은 대신 남자대학생은 「평등」을 5位로 꼽는 것과 6, 7位의 가치내용이 남여간에 서로 다르다는 것 뿐이다.

학년별 분석을 보면 性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2, 3, 4학년간에는 가치순위가 거의 비슷하다. 다만 1학년의 경우에는 상급학년이 「평등」을 5位로 꼽는 것을 7位로 꼽았다. 「평등」의 가치는 利他的이고 大衆的 가치인 바 1학년이 이 가치를 7位로 뽑은 반면 個人的 가치이고 小集團的가치인 「참된 우정」을 5位로 꼽았다는 것은 이 학년이 上級學年에 비해 가치관의 視野가 아직 좁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에 있어서는 1학년생이 上級生과 비슷한 가치를 지녔는데 이는 이들이 이미 대학사회의 규범에 同調했다는 것을 암시할지 모른다. 우리는 앞의 李勳求(1986)의 韓國과 美國青少年의 Rokeack가치 조사결과의 비교에서 한국 청소년이(주로 고교생) 個人的이고 小集團的 價値를 선호했다는 것을 想起할 수 있다. 그러한 청소년들이 大學에 들어 온지 1학기가 끝나기전에 벌써 상급학년의 가치를 그대로 습득한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김 진국(1987)의 연구결과와도 一致하는 것이다.

인문계와 자연계간의 차이는 大同小異하다. 즉 이들간의 1, 4, 6, 8位의 가치는 서로 꼭같고 나머지 순위간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반면 경제적 수준별 가치관의 차이는 지금까지의 대학생의 다른 배경적 특성보다 크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上인 대학생은 「행복」을 1位로 꼽는 반면 경제적 수준이 「中」 또는 「下」인 대학생들은 「자유」를 1位로 뽑았다. 경제수준이 「中」이나 「下」인 대학생집단은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제일 下位順位인 8位로 꼽는 반면 「上」집단은 이 가치를 5位로 선정했다. 이 결과는 경제수준이 「中」이나 「下」인 집단에 비해 「上」인 대학생 집단은 個人主義的인 가치(행복,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를 보다 선호함을 암시 한다.

Rokeach의 도구적 가치관에 관한 결과가 표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대학생 전체로 살펴보면(표1의 오른쪽 끝)이들의 評定順位는 다음과 같다 ; ①능력 ② 사랑 ③ 정직 ④ 용기 ⑤ 독립성 ⑥ 남에게 도움이 됨 ⑦ 야망 ⑧ 자제심.

한편 앞서 언급한 바 있는 Medinnus와 Johnson연구의 도구적 가치관의 順位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남자청소년의 評定 ; ① 정직과 성실 ② 사랑 ③ 포부와 근면 ④ 용기 ⑤ 책임감 ⑥ 솔직 ⑦ 능력 ⑧ 협조 ⑨ 자주성 ⑩ 관대 ⑪.⑤ 자기 통제 ⑪.⑤ 청결 ⑬ 쾌활 ⑭ 예의 ⑮ 지성 ⑯ 창의성 ⑰ 순

표 2. 대학생의 개인배경적 특성별 대학생들의 Rokeach의 도구적 가치의 評定順位

도구적 가치	성별				학년별								전공별				사회 경제적 수준						전체	
	남 (1,587)		여 (421)		1학년 (498)		2학년 (503)		3학년 (501)		4학년 (503)		인문계 (1,010)		자연계 (936)		상 (102)		중 (1,568)		하 (340)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총점	순위
능력	4,798	1	1,397	2	1,480	1	1,495	2	1,610	1	1,617	1	3,053	1	3,136	1	343	1	4,877	1	978	2	6,203	1
남에게 도움이 됨	2,003	7	569	6	688	5	634	6	674	6	578	6	1,342	6	1,232	7	105	7	1,990	6	479	6	2,574	6
독립성	2,239	5	661	5	632	7	730	5	801	5	741	5	1,451	5	1,439	5	179	5	2,187	5	538	5	2,904	5
사랑	4,471	2	1,448	1	1,469	2	1,532	1	1,359	2	1,566	2	3,043	2	2,875	2	304	2	4,620	2	1,004	1	5,931	2
야망	2,069	6	257	8	673	6	586	7	574	7	497	7	1,069	7	1,258	6	125	6	1,834	7	467	7	2,330	7
용기	3,244	4	690	4	977	4	1,092	4	932	4	937	4	1,977	4	1,950	4	198	3	3,042	4	701	4	3,941	4
정직	3,570	3	950	3	1,057	3	1,160	3	1,127	3	1,178	3	2,345	3	2,170	3	195	4	3,549	3	778	3	4,524	3
사리분별	1,395	8	343	7	496	8	400	8	411	8	429	8	876	8	857	8	80	8	1,402	8	257	8	1,740	8

종 ⑱ 사리 분별. 한편 미국 여자청소년의 評定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직 ② 사랑 ㉟ 도움 ㉟ 책임감 ㉟ 포부와 근면 ㉟ 협조 ⑦ 능력 ⑧ 용기 ⑨ 청결 ⑩ 예의 ⑪ 자기통제 ⑫ 창의성 ⑬ 관대 ⑭ 순종 ⑮ 쾌활 ⑯ 지성 ⑰ 사리분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사에서는 8個의 도구적 가치만을 조사했으므로 이를 미국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 앞서 말한 이 재창(1981)의 연구와 미국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李 勳求(1986)는 두 나라 청소년의 도구적 가치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 "……한국의 경우 「포부와 근면」, 「정직과 성실」, 「능력과 책임감」을 우선으로 꼽고, 미국의 경우 「정직과 성실」, 「사랑」, 「포부와 근면」을 우선으로 꼽았다. 양국 청소년이 중요시하는 도구적 가치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이들은 모두 「포부와 근면」, 「정직과 성실」이 인생에서 추구되어야 할 제일 중요한 수단 또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청소년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는 한국의 경우에는 「순종」, 「지성」등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사리분별」, 「순종」, 「지성」등이었다"(p. 245).

다시 우리의 조사결과로 되돌아 가보자(표2). 남자 대학생은 능력을 1位로 꼽은 반면 여대생은 사랑을 1位로 꼽아 女性的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야망」에 서도 나타나는 바 남대생은 이를 6位로 선정한 반면 여대생은 이를 최하위로 꼽았다. 학년별 분석을 살펴보면 학년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 특히 2, 3, 4학년의 가치선정은 거의 비슷하다. 2, 3, 4학년이 독립성을 5位로 선정한 반면에 1학년이 이를 7位로 선정한 것이 두드러진 차이다. 인문계와 자연계학생들간에도 도구적 가치 선정상의 차이가 大同小異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두 계열학생간의 6位와 7位 그리고 3位와 4位간의 가치선정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는 것 뿐이다. 이는 경제적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수준이 「中」인 집단과 「下」인 집단은 가치선정의 1位와 2位간에 차이가 있을 뿐 두 집단의 나머지 가치선정은 모두 유사하다. 경제수준이 「上」인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완전

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차이가 있어 보았자 이들이 7位로 꼽은 가치를 다른 두 집단이 6位로 꼽는식의 차이 밖에 없다. 다시말해서 경제수준이 「上」인 집단이 다른 두 집단과 대조가 되는 식으로 가치를 선정하지는 않았다.

한국 대학생이 대학생 전체로 보나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여러집단으로 나누어서 보나 도구적 가치중에서 「능력」을 제1位로 선정한 사실은 우리청소년이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의 경우는 이를 7位로 선정했다). 과거에 우리는 미국사회가 경쟁적이고 성공지향적인 반면 한국은 人情主義社會라고 評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거꾸로 된 느낌이 든다. 이것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대학입시의 副作用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직」, 「남에게 도움이 됨」, 「자제심」과 같은 도덕적 가치도 능력의 가치 못지 않게 중요시되는 사회라야 그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된다고 볼 때 우리 청소년이 이러한 가치를 중요시하도록 이끄는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2) 사회적 가치

이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 및 二次社會集團에 대한 관여를 측정한 것이다. 이 사회적 가치는 네가지 下位次元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次元마다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점수는 각 次元에 따라 總點을 내었는 바 이 總點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각 次元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예컨대 사회복지차원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반영한다.

대학생의 개인배경적 특성에 따라 사회 가치점수를 비교한 것이 표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3에 오른쪽 끝을 보면 전체란이 있는 바 거기에는 각 사회가치차원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있고 괄호속에 숫자(문항평균치)가 있는데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문항 평균치는 각 사회가치차원별 평균점수를 5로 나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5점 척도(아주 찬성부터 아주 반대선상의)로 측정했기 때문에 이 문항평균치가 3.00이상이 되면 찬성쪽으로 기우는 것을 암시한다. 네가지 사회가치차원의 문항평균치를 보면 모두가 3.00을 상회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네 개의 사회가치 모두를 찬성하는 것이 된다. 그 중에서도 이들은 집단동일시를 제일 강하게 찬성했고(문항평균치, 3.627), 그 다음이 사회복지이며(문항평균치, 3.547), 집단목표동조(문항평균치, 3.206), 그리고 도덕적 압력(문항평균치, 3.162)의 순이다.

대학생의 개인배경적 특성별로 사회적 가치점수를 비교해보면(표3) 먼저 성별로는 네 개의 사회적 가치차원중 「사회복지」의 한 차원에서만 有意한 차이가 나왔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찬성이 보다 강했다.

표 3. 대학생의 개인배경적 특성별 이들의 사회적 가치점수의 비교

사회적 가치	성별					학년별								
	남 (1,587)		여 (421)		t 값	1 학년(498)		2 학년(503)		3 학년(501)		4 학년(503)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f=3
사회복지	14.293	2.314	13.796	2.162	3.97**** (2006)	14.207	2.284	14.232	2.304	14.246	2.447	14.076	2.118	0.583
집단목표동조	12.822	2.476	12.836	2.200	-0.12 (727.68)	13.215	2.321	12.793	2.408	12.844	2.512	12.459	2.379	8.273****
집단동일시	14.529	2.555	14.432	2.163	0.79 (2006)	14.755	2.088	14.571	2.079	14.417	2.515	14.284	2.224	4.125**
도덕적 압력	12.688	1.833	12.518	1.908	1.68 (2006)	12.669	1.866	12.744	1.738	12.581	2.077	12.608	1.699	0.773

사회경제적 수준							전공별					#전체(2,011)	
상 (102)		중(1,568)		하 (340)		F값	인문계(1,010)		자연계(996)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f=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f)	평균	표준편차
13.275	2.584	14.155	2.225	14.615	2.409	14.354****	14.355	2.233	14.018	2.339	3.30*** (2004)	14.188 (3.547)	2.291 (.573)
12.755	2.427	12.849	2.405	12.750	2.484	0.281	12.874	2.394	12.783	2.443	0.84 (2004)	12.826 (3.206)	2.419 (.605)
13.569	2.820	14.585	2.175	14.424	2.270	10.260****	14.588	2.215	14.430	2.257	1.59 (2004)	14.507 (3.627)	2.238 (.559)
12.118	1.868	12.721	1.760	12.488	2.185	6.730**	12.721	1.697	12.586	1.988	1.63 (1949.46)	12.650 (3.162)	1.850 (.462)

전체란 속의 ( )는 문항 평균치 및 문항 평균치의 표준 편차

** P<.01

*** P<.001

**** P<.0000

학년별 비교를 보면 「집단목표동조」와 「집단동일시」차원에서 有意한 차이가 있었는데 「집단목표동조」에서는 1학년의 점수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3학년, 2학년, 그리고 4학년의 순이었다. 「집단동일시」의 경우에는 1학년의 점수가 제일 높았고 학년이 높아갈수록 이 점수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대학생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집단에 동일시하기 보다는 개인적 독립에 보다 더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집단목표동조」를 제외한 세가지 차원에서 집단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나왔는 바 이 세차원 모두에서 「상」인 집단 보다는 「중」과 「하」인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즉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를 더 강하게 찬성하고 있었다.

전공별 비교을 보면 「사회복지」차원에서만 有意한 차이가 있었는 바 인문계열의 학생이 자연계열생보다 「사회복지」의 가치를 더 강하게 지지했다.

사회가치에 관한 결과를 종합해 볼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 가치의 찬성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경제「上」인 집단보다「中」과「下」인 집단이 이를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中」과「下」인 집단의 사회복지에 대한 강한 지지는 요즈음 우리사회의 중하류층의 富의 편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豫想外로 학년별에 따른 사회적 가치점수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학년생이 이미 한 학기가 마감되기 전에 그 학교의 사회규범과 가치관을 모방한 탓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나 재미 있는 사실은 4학년이 오히려 저학년보다「집단목표동조」와「집단동일시」차원에서 그 점수가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졸업반이 되면 이들이 보수적인 태도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연구가 한 대학생을 4년간 추적 조사하여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하나의 가정으로만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회적 가치에 관한 외국대학생의 결과를 入手하지 못해서 이들과 우리 대학생을 비교하지 못한 것이다.

3) 정치 및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

정치문제는 네 개의 문항만을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이의 종합점수를 내기보다는 응답자의 각 개별 문항별 반응을 분석했다(표4). 정치문제에 관한 첫번

표 4. 정치 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 ) = %

문 항	반 응									
1. 우리를 일반 국민의 의견이나 희망은 나라의 정치에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 반영되어 있다	0(0)	전혀 반영 안된다(352)와 반영 안된다(1,243)를 합한 사람의 개인배경적 특성							
	반영된다	154(7.7)	성 별		학 년 별				전 공 별	
	모르겠다	258(12.9)	남	여	1	2	3	4	인문계	자연계
	반영 안된다	1,243(61.9)	1,280	314	382	408	397	407	851	744
	전혀 반영 안된다	352(17.5)	(80.9)	(74.6)	(76.9)	(80.5)	(79.6)	(80.9)	(84.3)	(74.5)
2.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의가 어느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 확립되어 있다	26(1.3)	아주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933)는 사람의 개인배경적 특성							
	확립되어 있다	92(4.6)	성 별		학 년 별				전 공 별	
	잘 모르겠다	198(9.8)	남	여	1	2	3	4	인문계	자연계
	확립되어 있지 않다	761(37.8)	764	169	214	244	235	241	475	459
	아주 확립되어 있지 않다	934(46.4)	(48.1)	(40.1)	(43.0)	(48.0)	(46.9)	(47.9)	(47.0)	(45.9)
3.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찬성	130(6.5)	아주 불찬성(591)과 불찬성(618)한다를 합한 사람의 개인배경적 특성							
	찬 성	313(15.6)	성 별		학 년 별				전 공 별	
	그저 그렇다	357(17.8)	남	여	1	2	3	4	인문계	자연계
	불찬성	618(30.8)	962	247	261	292	319	337	659	550
	아주 불찬성	591(29.4)	(60.7)	(58.7)	(52.4)	(57.5)	(63.9)	(67.0)	(65.2)	(55.1)
4. 한 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찬성	126(6.3)	전적으로 불찬성(732)한다는 사람의 개인배경적 특성							
	찬 성	293(14.6)	성 별		학 년 별				전 공 별	
	그저 그렇다	279(13.9)	남	여	1	2	3	4	인문계	자연계
	불찬성	579(28.8)	612	119	171	209	170	182	371	361
	전적으로 불찬성	732(36.4)	(38.6)	(28.3)	(34.3)	(41.1)	(34.1)	(36.2)	(36.7)	(36.1)

째 문항은「국민의 의견이 정치에 어느정도 반영되는가」에 관한 것인 바 다섯가지 선택지에 대한 반응율이 표4의 두번째 열(列)에 제시되어 있다.「반영 안된다」라고 답한율이 제일 많이 나와서 전체의 61.9%에 해당되고「전혀 반영 안된다」의 율(17.5%)이 그 다음으로 높아서 전체적으로 볼때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정치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전혀 반영 안된다」와「반영 안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골라 이들의 개인 배경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4의 3, 4, 5列에 제시되어 있다. 국민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안된다고 보는 응답자의 남여별 분포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고 학년별로 보면 4학년이 제일 많고 반대로 1학년이 제일 적다. 계열별 분포를 보면 자연계보다는 인문계열의 율이 더 높다.

두번째 문항은「사회정의가 어느정도 확립되어 있는가」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문항1과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반응했다.「아주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의 반응율이 제일 높았고(46.4%) 그 다음으로 높은 반응율은「확립되어 있지 않다」(37.8%)는 반응이다.「아주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로 반응한 사람들의 개인 배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40.1%)보다는 남자가(48.1%)더 많고 학년별로는 2학년(48.0%)이 제일 많은 반면 1학년(43.0%)이 제일 적다. 전공별로는 역시 인문계(47.0%)가 자연계(45.9%)보다 더 많다.

세번째 문항인「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야 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그래서는 안된다」(불찬성)는 반응이 제일 높았고(30.8%) 이 설문을「아주 불찬성」하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높다(29.4%). 이 두 집단(「아주 불찬성」과「불찬성」)의 개인배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역시 남자(60.7%)가 여자(58.7)보다 많고 학년별로 보면 학년이 높아갈수록 그 빈도가 일관성있게 높아가는 결과를 나타냈다. 전공별로는 인문계(65.2%)가 자연계(55.1%)보다 더 높다.

마지막의 정치적 이슈인「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불평등이 불가피한가」의 결과를 보면「전적으로 불찬성」율이(36.4%) 제일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은「불찬성」(28.8%)이었다.「전적으로 불찬성」의 대답을 한 사람의 개인배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38.0%)가 여자(28.3%)보다 더 많았고 학년별로 보면 2학년이 제일 높았고 3학년이 제일 낮았으나 사실 1학년과 2학년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無意味하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인문계(36.7%)가 자연계(36.1%)보다 약간 높게 나왔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無意味한 차이다.

정치문제에 관한 대학생의 태도를 보면 네가지 문항 모두에서 신랄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신랄한 비판적 태도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학년별로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에게서 보다 높게 나왔다. 앞에서 사회적 가치를 살

펴볼때 1학년이 고학년 못지않게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Rokeach의 가치관에서도 1학년은 고학년과 비슷한 가치관의 양상을 나타냈었다. 그런데 정치문제에 관한 결과를 보면 1학년과 고학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잘 모른다. 1학년생이 아직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대학의 규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지는 다음 연구의 과제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 학생보다 정치문제에 있어서 더 비판적인 것은 그들의 학문분야가 정치적인 문제와 有關하다는 槪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학생운동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는 10개의 리커트형의 문항을 통해서 측정했으므로 이 문항은 모두 합한 총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8개의 문항을 추려 각 문항별로 그 반응을 살펴볼 것인바 따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대학생과 비교해보기 위한 것이다.

표5는 10개의 학생운동조사 문항에 대한 대학생의 반응을 「전적으로 찬성」은 5점, 「그저 그렇다」는 3점, 「전적으로 불찬성」은 1점의 配點을 주어 총점을 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표5의 오른쪽 끝에 列의 전체란속의 평균밑의 괄호안의 숫자(문항평균치)는 학생운동조사문항 평균점수를 5로 나눈것 다시말하면 5점 척도상의 학생의 태도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숫자는 3.221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운동에 대해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 대학생의 개인배경적 특성별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 점수의 비교

	성별					학년별								
	남(1,587)		여(421)		t 값	1학년(498)		2학년(503)		3학년(501)		4학년(503)		F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f=2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	32.391	6.500	31.511	5.430	2.83 (770.50)	31.420	6.096	33.081	6.370	32.529	6.711	31.801	5.875	7.045***

사회경제적 수준							전공별					전체	
상(102)		중(1,568)		하(340)		F 값	인문계(1,010)		자연계(996)		t 값	(2,01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f=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f)	평균	표준편차
31.127	5.396	31.957	6.226	33.712	6.662	12.579****	32.919	6.212	31.466	6.302	5.20**** (2004)	32.210 (3.221)	6.298 (.630)

※ 전체란 속의 ( )는 문항 평균치 및 문항 평균치의 표준 편차

*** P<.0001

**** P<.0000

대학생의 특성별로 학생운동태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뚜렷하게 학생운동을 지지하고 있고 학년별로 보면 2학년(33.081)이 제일 태도점수가 높고 반대로 1학년과 4학년이 2, 3학년에 비해 이 점수가 낮게 나타나 있다. 대학생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별로 보면 「上」인 집단보다 「中」과 「下」인 학생이 학생운동을 보다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보면 자연계열 학생보다 인문계열 학생들의 태도점수가 더 높았다. 학생운동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태도는 전공별, 남녀별 그리고 경제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학년 별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점수가 높아지다가 졸업반이 되면 1학년 수준으로 떨어지는 曲線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를 각 문항별로 살피되 외국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우리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자료는 Klineberg, Zavalloni, Louis-Guerin, 그리고 BenBrika(1979)가 동서양 11個國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969-1970년에 조사한 결과이다. 우리의 조사시기와 이들의 조사시기는 커다란 時差가 있기는 하나 하나를 참고삼아 그대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한편 Kliheberg등이 1970년대의 조사문항을 1977년에 미국과 불란서의 두 나라에 다시 실시해본 결과 별로 변화가 없었음이 밝혀져서 학생들의 태도가 비교적 지속적임이 증명된 바 있다.

표6에는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세계 12個國(한국을 포함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의 괄호안의 숫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와 「찬성한다」는 사람의 율을 합한 것이다. 그리고 괄호위의 숫자는 전체 사례수이다. 사례수에 있어서 나라마다 큰

표 6. 학생운동에 대한 세계 각국 학생들의 태도 비교

( ) = %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 조사 문항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일본	나이제리아	스페인	투니지아	미국	유고	한국
1. 전 학생중 극렬한 학생운동 참가자는 소수이다.	750 (95)	478 (89)	700 (92)	587 (91)	763 (82)	416 (87)	228 (83)	667 (83)	132 (80)	638 (90)	1,074 (87)	2,009 (61)
2. 현재 학생운동은 미숙한 상태이다	749 (58)	(62)	688 (53)	577 (62)	791 (77)	354 (83)	213 (35)	716 (50)	133 (35)	641 (52)	1,077 (15)	2,009 (56)
3. 학생운동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것이다.	702 (54)	469 (76)	628 (61)	530 (51)	737 (52)	388 (58)	222 (77)	667 (61)	122 (78)	588 (52)	1,073 (87)	2,006 (80)
4. 학생운동의 수단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것이다.	669 (36)	472 (63)	613 (25)	495 (43)		(25)	208 (67)	667 (41)		592 (29)		2,009 (47)
5. 학생운동은 구세대가 미처 몰랐던 진실을 밝혀냈다.	721 (68)	480 (66)	668 (82)	562 (67)	786 (76)	402 (82)	219 (84)	694 (83)	134 (89)	630 (66)		2,009 (62)
6. 학생운동 목표중의 하나는 학생과 근로자를 연계시키는데 있다.	709 (47)	478 (41)	647 (51)	543 (55)	771 (63)	353 (62)	223 (81)	671 (64)		550 (61)	1,072 (67)	2,008 (37)
7.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라도 노동운동을 도와야 한다.	733 (8)	(26)	663 (14)	563 (11)	775. (26)	371 (11)	220 (35)	700 (24)		614 (5)		2,008 (9)
8. 학생운동 목표중의 하나는 현 정치체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742 (22)	480 (33)	662 (45)	570 (28)	733 (72)	393 (73)	225 (33)	666 (60)		635 (16)	1,078 (18)	2,007 (51)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가 사례수가 제일 많고(2010명) 또한 전국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임에 비해 사례수가 너무 적어(예컨데 나이제리아와 투니지아) 대표성이 문제가 되는 나라도 있다.

「전 학생중 극력한 학생운동 참가자는 소수이다」라는 문항에 찬성하는 대학생의 율은 우리나라 대학생이 제일 적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극렬한 학생운동 참가자가 소수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두번째 문항은 학생운동을 비판하는 내용인 바(학생운동은 미숙하다)이에 찬성하는 율은 몇개국(예컨대 유고, 나이제리아, 투니지아)을 제외하고는 서로 엇비슷하다. 유독 일본만이 이에 찬성하는 율이 높아서 83%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56%로 나타났다.

세번째 문항은 학생운동의 목표에 관한 것인데 이 운동의 목표를 민주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의 율은 유고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다. 조사한 12個國의 대학생들은 모두 50%이상이 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학생운동의 수단이 민주적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조사결과는 나이제리아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이에 찬성하는 대학생의 율이 저조하여 40%를 밑돌며 한국의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다섯번째 문항은「학생운동은 구세대가 미쳐 몰랐던 진실을 밝혀냈다」인데 12個國 대학생 모두가 아주 높은 율로이를 지지하고 있고(70~80%)반면 한국(62%)과 유고(56%)가 낮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여섯번째 문항은「학생운동 목표중의 하나는 학생과 근로자를 연계시키는데 있다」인데 이를 찬성하는 율은 한국이 제일 적어서 37%인 반면 많은 나라에서 이에 관한 찬성율은 50~60%에 이른다.

「학생은 학교를 그만 두고라도 노동운동을 도와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9%), 호주(8%), 미국(5%)이 제일 적은 찬성율을 보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조사된 모든 나라가 낮은 찬성율을 보였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율을 나타낸 나라는 나이제리아(35%), 이태리, 그리고 오스트리아(각기 26%)이다.「학생운동목표가 현 정치체제를 바꾸자는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이에 대한 찬성율이 크게 다르다. 일본, 이태리는 70%이상인 반면 미국은 16%, 호주와 영국은 20%대이고 한국은 그 중간이어서 51%로 나타났다.

학생운동에 대한 세계 각국 대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볼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모든 나라의 대학생들이 극력한 학생운동가는 극소수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고 학생운동의 목표가 민주적이고 학생운동은 구세대가 미쳐 몰랐던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이들은 자

신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학생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학생운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학교를 그만 두고 노동운동을 해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역시 지성인다운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대학생의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떤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온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학생은 학교를 그만 두고라도 노동운동을 도와야한다」에 대한 찬성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고(9%) 「학생운동의 목표중의 하나는 학생과 근로자를 연계시키는데 있다」에 대한 찬성율도 12個國중에서 제일 낮은 37%이다. 그러나 한편 한국학생은 학생운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답했는 바 「학생운동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유고 다음으로 높은 찬성율(80%)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학생들은 학생운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온건하고 학생운동본연의 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4. 결론 및 제언

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 사회적 태도 및 정치적 태도를 實證的으로 조사하되 그들의 여러가지 個人背景的 特性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한국대학생들의 결과를 외국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우리의 연구와 외국의 연구는 조사시기의 時差가 있고 調査內容의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서 1對1의 비교에는 無理가 있다.

Rokeach의 가치관 조사결과를 보면 특히 Rokeach의 도구적 가치에서 한국과 미국청소년간에 그 價値選好차이가 있었다. 한국대학생들은 成就指向的이고 能力의 가치를 選好한 반면 美國청소년들은 道德的인 가치(예컨대 정직)를 더 選好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成就와 경쟁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유된 것 같다. 궁긍적 가치관에 兩國大學生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한국대학생들이 미국청소년보다 국가의 안위를 중요한 가치로 선정했다는 사실이다.

한국대학생가정의 경제수준은 대학생의 Rokeach의 궁극적 가치선호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안의 경제수준이 「上」인 집단은 「中」이나 「下」인 집단 보다는 個人主義的 가치(예컨대 「행복」,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를 더 좋아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책임감(즉 利他的 책임등)과 二次集團에 대한 관여를 측정한 것인 바 이는 대학생 가정의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경제수준이 「上」인 집단보다는 「中」이나 「下」인 집단이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시했다.

정치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조사했는바 첫째는 정치적 쟁점에 관한 태도이고 두번째는 학생운동에 관한 태도다. 전반적으로 볼때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Rokeach의 가치관 검사결과에서는 학년차가 없었는데 비해 이 학년차는 재미있는 연구결과이다. 정치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그리고 인문계는 자연계보다 더 신랄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대학생들은 외국 11個國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볼때 외국대학생들에 비해 학생운동이 학생운동 본연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학생운동에 관한 12個國의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에 대한 찬성율이 서로 엇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물론 나이제리아 투니지아 같은 예외적인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사례수가 적다는 점에서 반응의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엇비슷한 결과는 두가지로 설명할수 있는데 첫째는 이들이 知性人이기 때문에 理性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서 서로 비슷한 태도를 나타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이들은 고교출신자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비해서는 온건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두번째 해석은 대학생의 文化가 凡世界的인 것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Klinegberg(1979)등은 청년문화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全世界的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학생운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학생운동이 어느정도 凡世界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국대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태도가 서로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엇비슷한 결과는 각국 대학생의 知的 水準의 유사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無理가 없을 것 같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전체대학생을 대표하는 집단을 선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경비와 시간관계상 標集의 최종단계에서 無作爲 標集을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많은 연구가 一部地域의 그리고 一部大學生만을 조사했고 또한 그러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개인적 배경 특성을 연관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意義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밝혀진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대학생이라도 남여별, 학년별, 사회경제수준, 그리고 전공별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정치적 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은 같은 대학생 집단간에 서로 충분히 다른 下位集團(sub-group)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려는 연구에서는 여러종류 下位集團이 대학생사회에 존재함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 태길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서울 : 일조각, 1977.

김 진국 **대학생의 정치사회적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 사회심리분과위원회 발표 논문, 1987(출판중).

이 재창 **청소년 문제 종합진단연구－자아개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145, 1981.

이 훈구 **성격** 최 정훈 외 4人공저 **심리학**중 제8장 서울 : 법문사, 1986.

황 응연 **대학생의 가치관및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 : 익문사, 1975.

차 재호 **가치관의 변화**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제(한국사회과학협의회 편)중 p. 397-p. 429 서울 : 법문사, 1986.

Bem, D.J. *Belief &, Attitudes, and Human Affairs*. Belmont, Calif : Brooks/coble, 1970.

Medinnus, G.R., & Johnson, R.C.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ae)*. John Wiley & Sons. Inc, 1976.

Perole, S.L. *Social Values Questionnaire Final Report to Office of Education on Project S-308, Bureau No*.5-8210.1967.

Rokeach, M.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 Jossey, Bass, 1968.

Kineberg, Zavalloni, Louis-Guerin, and BenBrika. *Students Values and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79.